

## 일본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

- 일본의 최대 철강업체인 신일철주금이 제 4위인 닛신제강(日新製鋼)을 매수기로 결정
  - 중국의 철강공급 증가 등으로 인한 강재시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, 생산설비의 집약·통합 등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려 의도임
  - 중국발 과잉공급은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일본 철강업체는 신일철주금과 규모면에서 더욱 격차가 벌어질 JFE와 코베제강도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, 사업 재편이 한층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
- 
- 일본의 최대 철강업체인 신일철주금이 2월 1일, 일본 제4위의 철강업체인 닛신제강(日新製鋼)을 2017년 3월까지 매수하기로 결정
  - 닛신제강은 히로시마 현 소재 쿠레(呉)제철소의 고로 2기 중 1기를 2019년에 정지, 신일철주금으로부터 중간제품을 조달기로 함

### □ 배경

- 일본 국내 철강업체는 국제적인 재편압력과 신흥국 기업들의 대두로 재편을 추진해 왔는데, 2012년에는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공업이 합병하여 신일본주금이 탄생
- 그러나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공업의 합병발표 5년 만에,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신일본주금이 다시 구조조정에 직면
- 중국의 철강공급 증가 등으로 인한 강재시황의 침체로 세계 철강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, 생산설비의 집약·통합 등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 이번 신일철주금에 의한 재편의 목적임

## □ 주요 내용

- 신일철주금은 닛신제강에 대한 출자비율을 현행 8.3%에서 51~66%로 높일 방침
  - 닛신제강은 신일철주금의 자회사로 된 후에도 상장체제를 유지기로 함
- 자회사화 방법으로 신일철주금에 의한 닛신제강 주식의 TOB(주식공개매입), 닛신제강이 제 3자 할당방식으로 발행하는 주식을 신일철주금이 취득하는 방법 등을 검토
  - 닛신제강의 1월 19일 주가로 산출하면 TOB로 51%까지 추가 취득하는 경우 매수액은 500억 엔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, 구체적인 내용은 5월 중순경 결정
- 현재 신일철주금은 일신제강의 지배주주로 중간제품을 상호 공급하는 제휴관계에 있으며, 한 때는 신일본제철 시절부터 닛신제강에 사장을 파견한 적도 있었음
- 닛신제강은 쿠레 제철소에 있는 고로 2기 중 1기를 2019년도 말까지 확대·개수한 후 나머지 1기는 정지
  - 이에 따라 중간제품의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는데, 부족분은 신일철주금으로부터 조달
  - 신일철주금은 자사생산설비의 가동률 향상으로 이어지게 됨


## □ 영향 및 전망

- 이번 재편으로 신일철주금 자회사인 신일철주금스텐레스와 닛신제강을 합쳐 일본 국내 스테인레스강 셰어가 약 50%에 이르게 됨으로써, 일약 스테인레스강 분야에서 일대 세력이 탄생하게 됨
- 신일철주금은 자동차용 강판을 비롯하여 철강제품 전반에 강점이 있는 반면, 닛신제강은 스테인레스강 재료와 건설용 강판, 자동차부품용 특수강 분야에서 강함
- 그러나 양사 간 중복되는 품종도 있어 자회사화로 일본 국내 셰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앞으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7년 3월을 목표로 자회사화를 추진

- 신일철주금도 닛신제강과 마찬가지로 철광석에서 강재의 원료를 만드는 고로의 생산능력이 남아도는 상황임
- 따라서 앞으로 초점은 양사가 안고 있는 과잉설비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소하느냐 하는 것임
- 닛신제강은 쿠레 제철소에 있는 2기의 고로 중 1기를 정지할 방침인데, 강점인 영업력을 활용하여 앞으로 경영자원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임을 강조
- 중국발 과잉공급은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일본 철강업계는 신일철주금과 규모면에서 더욱 격차가 벌어질 JFE와 코베제강도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, 재편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
  - 이번 재편으로 일본 국내 고로업계는 신일철주금, JFE홀딩스, 코베제강소 등 3개사로 압축

## □ 시사점

- 일본 철강업계의 재편은 2012년 구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공업간 합병에 의한 신일철주금의 탄생에 이은 것인데, 재편의 배경은 크게 다름
  - 舊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공업의 통합은 양사의 인재와 기술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사업기반을 강화하고, 국제적 전개를 가속화하는 데 목표를 둔, 공격형 재편의 성격이 었음
  - 이와 비교하여 이번에는 방어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서 중국발 세계적인 철강 과잉에 대한 대응이 목적임
    - 이에 신일철주금과 닛신제강 양사는 자본의 결합을 강화하면서 제품을 융통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황을 돌파하기 위한 생존전략을 강구
- 이번 재편은 설비과잉에 직면한 타산업으로서도 참고가 됨
  - 양사 모두 현재 영업실적이 크게 부진한 상태에 있기는 하나 아직은 흑자상태지만, 영업실적이나 기업채력면에서 여유가 있는 동안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차후에 대비하려 한 것임

- 특히 신일철주금은 세계 라이벌 기업들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나 중국발 철강불황이 보다 심각해지게 되면, 경영실적이 더욱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, 그나마 체력이 남아있는 지금 넛신제강을 자회사화함으로써 그룹 전체를 근육질로 바꾸려 한 것임
  - 경영실적이 악화된 후에 재편에 착수하는 것은 이미 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, 미래를 내다본 경영자의 결단이 중요함
- 한편, 재편의 시비에 대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도 주목됨
- 단순히 국내 생산웨어만이 아니고 수입품과의 경합이나 세계 철강시장에서 초대형 기업들의 움직임에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질지도 주목의 대상임
- 나아가 앞으로 세계철강 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심각한 만큼, 이번 재편이 일본 철강업계만 국한하지 않고 세계 경쟁업체들과의 제휴도 포함한 대대적인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- 2015년에 포스코가 처음으로 적자를 냈는가 하면, 중국의 대형 철강업체들도 대폭적인 수익 감소에 직면하는 등, 어느 기업도 자사만으로 살아 남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음.

#### <참고자료>

넛케이신문(2016.2.1/2/3/4)